

2010.12.20 미래정책연구실

□ FAO,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협약 활성화 논의

1. FAO(2010.12.08) 주요 내용

- 지난 12.8일 로마에서 60개 이상 나라의 수석대표들이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협약(ITPGRFA: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과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기금(BSF: Benefit-Sharing Fund)”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회의를 개최함.
 - ITPGRFA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전자원을 회원국 간 교환 하여 사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FAO의 제안으로 2004년에 발효된 조약임.
 - 이탈리아 농업장관인 Giancarlo Galan은 이 협약으로 인해 식물 종의 유전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함.
- 2008/2009년에 운영되기 시작한 BSF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의거 주요 국제기구로 인정됨.
- 반면 ITPGRFA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대한 나고야 협정 채택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 ABS는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기업 등은 해당 자원 제공국의 국내 법제도에 따라 사전통보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을 이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자원제공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합의로 2010.10.29에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됨.
- ITPGRFA는 협약이 제공하는 식용작물에 대한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가맹국,

기업, 단체 등의 기부에 의존하며, 주요 기부국으로는 스페인, 노르웨이와 오스트레일리아임.

- 기부금으로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의 농가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유전적으로 다양한 작물을 저렴하게 재배할 수 있게 됨.
 - 이 협약의 기금운영방식은 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통해 농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
 - 이 협약은 2014년까지 1,16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함.
 - 최근 FAO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2055년까지 감자, 콩과 같은 주요 식량작물의 근연종의 22%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함.
 - 하지만 세계적으로 1,750개의 종자은행이 있으며, 이들에 7백만 개의 유전자 샘플에 보유하고 있음.
 - Shakeel Bhatti(국제협약의 총장)은 ITPGRFA가 이러한 생물다양성 감소, 세계 식량 위기, 기후변화, 빈곤완화, 농촌개발 등과 같은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 2. 시사점
-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2009년에 가입하여 가입국으로부터 유전자원을 분양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됨.
 - 이를 활용한 신품종 육성을 통해 수입대체 및 로열티 해소, 수퍼종자의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임.
 - ABS의 채택으로 국내고유 유전자원의 보존을 통한 자원주권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ABS 나고야 의정서” 발효 전에 국내 법제도 정비 및 자원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ABS는 2012년 6월 발효될 예정
 - 자원 접근 및 이용에 관한 국가간 MOU 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국내 연구자들과 기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 필요